

말씀의 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마태복음 6:9~13>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는 질서와 차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 속에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있어서 비록 인간이 힘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천지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질서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에 접근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그것에 접근할 수 없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로켓을 타고 아무리 우주공간을 향해 날아가도, 물리적 세계에서 영적세계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본다면, 높은 차원에서는 낮은 차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아무런 도움이 없이 도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며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분과 하나되어 구원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스립니다.

멧돼지가 배추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기린이 나무 열매를 마구 따먹고, 개미들이 나무 안에 집을 짓고 살면서 나무가 고사되어간다 할지라도 식물들은 공간을 자유자재로 다니며 영향을 미치는 동물들에게 항거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동물들을 사육합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몸을 입은 사람보다 몸을 입지 않은 영적존재들은 사람에게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의 삶에 문제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을 통해 속이고 조종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보다 초월적인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자녀는 아버지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부를 때, 마귀는 공중에 권세를 잡고 우리에게 군림하려하지만, 더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소속된 우리를 함부로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4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포섭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높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가장 높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자기보다 더 못한 것을 섬기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타락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취급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별로 크게 여기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강력한 권세를 통해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마귀의 나라, 죄의 나라, 망하는 나라를 쳐부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유자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죄 많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패배하고, 안되고 가난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법과 통치로 지금 다스려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더욱 높아지셔서 권세를 발하시고 그 힘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두란노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2016년 11월 6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11. 13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출애굽기 27:1~8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